

투데이 칼럼

북한 김여정의 위상

올 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중앙고보대회를 개최하고 김 위원장 위상화 작업을 극대화시켰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님이나 위상이 높아진 인물이 있다. 바로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다. 그녀는 10년 동안 북한 내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활약도 대단했다.

김여정 부부장 등장 때마다 뉴스 거리가 되고 세간의 관심이 모아질 정도다. 2012년 7월, 평양농민인민유원지 준공식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내 리설주 여사의 뒤로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화단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기까지 했다. 북한의 공식 행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위상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당시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언론의 관심은 김여정 부부장에게 쏠아졌다.

그는 최초로 남한 땅을 밟은 김씨 일가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친여동생이었다. 그녀의 위상과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 2박 3일 일정 동안 드러났다. 대표단 단장인 구순



정복규
논설위원

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예우를 갖추었다.

김여정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을 확인한 건 청와대 방문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며 자신을 특사로 소개한 것이다. 외신들 역시 김 부부장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타진했다.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핏줄이자 '실세 여동생', '핵심 인물'로 평가했다. 해외 언론의 관심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유럽을 오가며 김여정 다크를 준비 중인 프랑스 아르떼TV는 김 부부장이야말로 한반도 이야기를 풀어갈 중요 매개체라고 평가한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내외 무대 곳곳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언제나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필했고, 현장 전란을 장악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다. 김 부부장의 발언 하나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야 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다.

북한은 2020년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김여정 부부장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첫 대남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저능한 사고방식' '세 살 난 아이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등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급기야 같은 해 6월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사흘 만에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정책의 중요 결정자의 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미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에 대화의 손

짓을 보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폼보다 해풍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풍을 하는 것 같다"며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대미 담화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김 부부장은 누구보다 전면에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엔 오빠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신뢰가 밀바탕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년 시절 스위스에서 함께 유학하며 형성한 끈끈한 유대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당 제비서적'이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제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제비서적에 임명되는 순간 총비서와 같은 영향력과 권한을 갖게 된다. 제비서적에 누가 임명됐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자리 역시 김여정 부부장을 열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여정 부부장의 높은 위상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린다. 위상만큼이나 대남, 대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설

백세시대 제2의 인생 박춘자 화가

백세시대에 제2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고 있다. 올해 77세의 박춘자씨는 행정 공무원 출신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화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림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틈틈이 그려왔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그림 수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목·이빛' 초대 회장을 지냈다.

'목·이빛 전시회'는 이목홍성녀 교수 문하생들의 작품전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5년 제1회는 전주공예품전시관, 2016년 제2회는 전북예술회관, 2017년 제3회는 서화아트스페이스 전시실에서 각각 열렸다.

2018년 제4회 '목·이빛전 기획 초대전'은 함평 잠월미술관에서 열렸으며 2019년 제5회 '목·이빛전 열정! 물 오르다'는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던 전시회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춘자 화가는 현재 한국미술협회, 남원미술, 색오름회, 자명회, 소독서화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초대전, 그룹전, 회원전 등 50여회에 출품했다.

자명회는 지난 1985년 창립된 이후 해마다 전북 도내에서 회원전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자선전, 호남우수작가전, 영호남교류전, 전라북도미술단체연합전 등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춘자 화가는 40여 년 동안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최초 공직에 투신한 때는 지난 1967년 22세 나이였다. 특히 2년 6개월 동안 남원시 수지면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죽산박씨(竹山氏) 후손이다. 죽산박씨 집성촌인 이곳 수지면에서 태어나 자랐다. 훗날 고향에서 명장을 했으니 김의환장(錦衣張)을 한 셈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 문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세제 개편안 중 하나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 고불가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짐작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다.

급여가 높거나 주택이 많을수록 혜택이 큰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소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시큰둥한 직장인이 많다.

세금 혜택이 더 필요한 건 급여가 낮은 사람들이다. 이런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적게 돌아갈 것이 문제다. 물가 상승 대비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연봉에 따른 감세액을 보면 5천만 원 이하는 1만6천 원 정도다.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 혜택이 더 커진다. 1억 원을 버는 직장인은 세금이 월 4만5천 원 줄어든다.

비율로 보면 전체 4분의 3인 절대 다수 중·저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 1만 원대의 혜택만 보게 되어 있다. 이

어지는 반발에 내내 해명 자료를 내던 기재부는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명했다.

신용카드 공제나 연금 공제 등 다른 혜택들도 소비와 저축 여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감세가 지나친다는 지적이 많다.

서민들 가운데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부자를 위해서 감면해준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사례별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부담이 줄다가 내년에는 오히려 늘어난다.

반면 2, 3 주택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세금이 2년 전인 2020년보다도 적어진다. 다주택자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큰 이익을 봤다는 말이 사실이다.

법인세도 정부가 인용하는 연구 결과와 다르다. 일자리 증가나 투자 확대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보우소나루 꺼져"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대 법대 밖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전지투표 방식 비판과 대선 불복 시사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성명 낭독회에 참석한 한 남성이 "보우소나루 꺼져"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분수는 도심의 오아시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인근 분수대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의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는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경고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